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7, 예레미야 30-33, 회복의 단계,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7회, 예레미야서 30-33장의 회복단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확실히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과정이 끝날 무렵 예레미야서의 심판 메시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복구.

물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핵심 구절은 새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맺으시려는 이 새 언약은 구약의 구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의 성취로 실제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의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주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땅으로 돌아갈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들은 유다 성읍들,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강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의 메시아의 출현은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회복의 축복인 왕국도 열방까지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핵심 약속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추어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몇 번의 세션을 통해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과 새 언약,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을 통해 실행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지금이고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회복에는 가깝고도 먼 면이 있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정말로 더 큰 회복, 즉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가져올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가까운 회복과 먼 회복의 차이를 항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개되는 구원 역사를 볼 때, 신약 계시의 추가적인 관점을 접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회복, 새 언약, 땅으로의 귀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러한 예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를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확실히 예레미야의 관점의 일부인데,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역사 속에서 BC 536년에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배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605년이 유배의 시작이고 538년이 그것의 끝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67년이 됩니다.

586년부터 538년까지로 날짜를 정하면 날짜가 약간 다르지만, 유배 시기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70년을 어림수로 사용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세대는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머무는 평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C 538년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와 키루스에게 함락되자, 키루스는 536년에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으로의 귀환에 관한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의 귀환은 사실상 성취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에 관해 했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 약속의 유일한 성취라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큰 차이로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광고되는 것들을 봅니다.

Expedia.com에서 호텔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흥미로운 각도나 다른 사진으로 그것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일어난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일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전부라면, 그들의 언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성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넘어서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 이상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심지어 예레미야서부터 땅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구약의 역사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배 생활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내가 아노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미래가 수반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이는 30~33장에 사용된 주요 표현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축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할 때, 그들은 충만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38년에서 536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유배 귀환을 살펴보면, 현실은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왔거나 적어도 그들 중 많은 수가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은 실제로 변하지 않은 채 지리만 바꿨다는 것입니다. 신을 위해.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데 달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 계획에 대한 응답 사이에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서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고, 사람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으며,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분명하게 밝혀 주는 추가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안에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24~2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죄의 완전한 종말,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안전하게

세워지고, 7년 중 70주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인 490년 기간으로 받아들이든, 묵시적인 문헌에서 날짜와 기간이 단순히 오랜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보든,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단순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흥미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느헤미야 9장 36절과 37절에서 이 기도문을 읽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귀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귀환의 나중 물결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오늘날 우리는 종이다.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열매와 좋은 선물을 즐기라고 주신 땅에서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물은 우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몸과 우리 가족을 마음대로 다스리므로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백년 동안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지난 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속박과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모든 약속과 멍에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세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회복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기 시작하고 내 생각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얻는 특정 단서와 지표로 볼 때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는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킨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메뚜기 떼의 침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은 특별히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졌습니다.

요엘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지자인 요엘은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 전에 백성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다행스럽게도 요엘 2장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경고에 반응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추가 경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로 이후의 또 다른 선지자인 스가라는 성전 재건에 대해 사람들을 격려했으며 요엘 시대 이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 8장 7절에서 귀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반환에 대한 미래의 미래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멀고 먼 모든 땅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시대 이전에 시작된 귀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준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스가라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침략과 심판을 상상합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그 시대에 경험했던 심판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주는 환상을 들어보십시오.

불성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언약의 저주, 심판, 군사적 침략, 포로, 패배, 죽음 등의 모든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너희에게서 탈취한 것이 너희 가운데 나누어질 것임이니라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을 치러 싸우게 하리니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되며 여인들은 강간을 당할 것임이라.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라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겪었던 참혹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나라들을 치시되 마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개입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스라엘과 열방의 생존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 기간에 일어난 귀환에서 경험했던 것 이상의 포로, 귀환, 회복,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는 유배 기간 이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일련의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들이 십일조를 내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성약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약속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엘리야의 목적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된 신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엘리야의 목적은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께 대한 언약의 신실함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회복을 통해 백성의 재산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회복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다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40~43장에서 이야기하고 서술한 포로 직후의 여파와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에도 끝없는 포로의 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그 자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와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왕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룬 52장의 부록입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희미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의 조건이 예레미야 52장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가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제 생각엔 저 세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거나 마음에 새 마음을 쓰시거나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언급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작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강제적인 회개를 강요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얻으시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자유 의지를 제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뛰어난 구약학자인 존 콜린스(John Collins)는 예레미야서 31장과 새 마음에 대한 약속,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생각할 때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셔야 합니다. 글썄요,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개를 볼 때,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상호 작용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에게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시려는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귀환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러한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이의 투쟁은 포로 생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입니다. 나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마음에 새기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올바른 반응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롭고 변화된 마음을 갖는 이 새 언약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과정에서 인간의 반응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신학을 토론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마음을 쓰시거나 새 마음을 주시거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구절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성경은 종종 우리의 엄격한 신학 체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이 뒤섞여 상호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체스의 대가로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조각을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주권적이어서 인간의 반응의 모든 상호 작용과 유발성을 허용하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할 때 그들의 자유 의지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 지저분한 상호 작용이 심지어 신약성경에도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개의 신학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호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그 귀환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선물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회복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시행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언약을 이행합니다.

신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 사이의 지저분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이 성경 메시지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말기에 이르러 부분적인 복귀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온전한 복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들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중간기를 빨리 지나가서 예수님 시대의 신약시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NT Wright와 다른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포로 기간 이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본 적이 있다는 중요한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비록 그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속박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고, 포로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잠시 동안 독립의 기간을 누렸다가 로마인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포로 생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복음서에는 예레미야서를 신약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것은 울고 애통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그는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통곡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많은 부족의 어머니인 라헬은 죽음과 포로 생활을 보고 자신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반전입니다. 글썬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의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왕좌의 경쟁자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할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헬은 다시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곳에서 구약성경을 매우 흥미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문맥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썬요, 여기서 성취라는 개념이 반드시 예측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패턴, 즉 패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 자녀들과 죽음과 파괴와 포로 생활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재앙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것은 그 패턴이 계속되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여전히 자식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추방의 조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악하고 사악한 왕이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는 외국의 속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추방 조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신약성서의 몇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유아기와 출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 구절 몇 개를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내 생각에 누가는 그의 복음서 바로 앞에 메시지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출은 단순히 키루스가 포고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6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재림에 대한 그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요한과 예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돌보사 구원하셨음이라도 내 말은,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귀환을 말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분은 이 일의 일부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옛적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로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제쳐두지 않으셨고, 궁극적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님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배로부터의 진정한 완전한 귀환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다음 장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도록 허락하신 이 여선지자 안나는 회복과 왕국에 관한 모든 약속과 마지막 약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날—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이것이 Anna가 갖게 될 반응과 반응입니다.

36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처녀로 있다가 과부가 된 후 칠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세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약속의 시작,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녀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초림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왕국, 회복, 새로운 다윗, 예루살렘의 축복, 모든 것에 관해 했던 약속의 성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 중.

스콧 맥나이트(Scott McKnight)가 그의 저서 왕이신 예수 복음(The King Jesus Gospel)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구원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초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날 모든 일의 회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구원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마침내 그분께 충실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고 계신 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선지자와 종말론에 대해 생각하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다가올 날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간표도 없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축복의 시대, 뭐라고 부르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세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을 말할 때 그 시대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예수님의 재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방식으로 보면, 미래에 예레미야가 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나라, 그리고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본 이 모든 축복은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때이다. 예수의.

그것은 그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실제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제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은 그 질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본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상 동안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일종의 신학 체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구약의 일부 구절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이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것과 그가 이스라엘에 가져올 구원과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몇몇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평화를 공포하는 자, 행복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속하는 왕이라는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며, 이러한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써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며,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사자들이 바로 요한과 예수이다. 이사야 61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포로 된 자에게 옥을 열어 주고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도래와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예언적인 전령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가 이 일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그가 읽은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1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서를 마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장래의 회복과 포로에서의 해방, 포로들의 해방,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말할 때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시작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 시대, 예레미야가 약속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베드로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한 요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사자를 보내어 약속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회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사자들에게 요한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왕국과 회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John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의 눈이 열리느니라 귀머거리의 귀가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고 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왕국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할 때 왕국 축복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왕국의 때가 이르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눅 22:20).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왕국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가져오실 분은 결국 자신의 백성이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죽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단계는 시작 후 70년 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백성들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두 번째 단계를 겪었습니다. 이때 왕국이 출범하지만 실제로 왕은 죽어야 한다. 그 왕국과 회복 약속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3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왕국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아직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왜냐면

3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약속은 성취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그들은 지금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회복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 때 왕국의 축복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리고 그가 가져올 왕국의 축복을 알리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거부와 불신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는 예수님 시대보다 5~600년 전에 새 언약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며 억압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죄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하실 때, 나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거절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 같군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약속한 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도래했지만 불신으로 인해 약속된 것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거부하고 불신하는 반응은 새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구상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불신의 결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다른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때때로 신약성서 연구에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의 작은 사촌으로 취급됩니다. 이사야가 신약성서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쳤고, 신약성서에 묘사된 회복이 이사야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예레미야에게도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역할은 예레미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에 맞서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메시지와 믿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이 불신앙에 맞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이거나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 연관시켰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자기 백성의 불신으로 인해 예수께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나갈 무렵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예수님이 예배의 부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묘사하는 표징 행위를 수행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 행위를 행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에게 알리실 때, 실제로 예레미야의 옛 자료 중 일부를 차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알리는 성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로버츠의 굴뚝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 예레미야서에서 직접 그 표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586년에 유다에게 내린 동일한 심판,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이 포로의 심판,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한 것으로 인한 이 포로의 심판, 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망명자가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은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바와 같이 이미 586년에 일어난 포로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의 멸망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예레미야는 실로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실로를 심판하셨다면 현재에도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예레미야서 7장에서 강도의 소굴에 관해 말씀하실 때 매우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일이 서기 70년에도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정결과 돈 바꾸는 자들의 탈취와 성전 정결에 관한 기록에서 성전 정결은 또 다른 사건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전개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신다. 그는 그것을 저주합니다. 그는 성전에 간다.

그는 그곳에서 사인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불모를 상징한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올바르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서 올바른 종류의 열매를 구하셨으나 얻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무화과나무의 시각적 이미지로 언급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8장에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다시 예레미야 7장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설교입니다. 그곳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8장 13절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두기로 한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뭇잎마저도 시들었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열매 없음으로 인해 성전이 멸망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레미야가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시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저주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영적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전 파괴를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속한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성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러 번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관해 연구한 모든 것을 듣지 않고서는 이 구절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오, 내 머리는 눈물의 샘이요, 내 백성의 멸망을 인하여 슬피 울 수 있도다."

예레미야서 7장을 듣지도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여러 번 죽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여러분은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회복의 약속, 왕국의 약속, 말세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약속은 지금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 계약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아직이 아닌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복을 통해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과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실 이 새 언약에 관해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7회, 예레미야서 30-33장의 회복단계입니다.